

팔리·범어 연구 '거북걸음'

원전교육 재정·전문인력 태부족 유학승 파견·'외국어학림'에 기대

최근 부처님의 원음(原音)이 담긴 경전을 직접 읽으려는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줄 내실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처님 원음이 담긴 경전이란 부처님 재세(在世) 당시와 근접한 시기에 통용됐던 언어로 쓰여진 산스크리트어·팔리어 경전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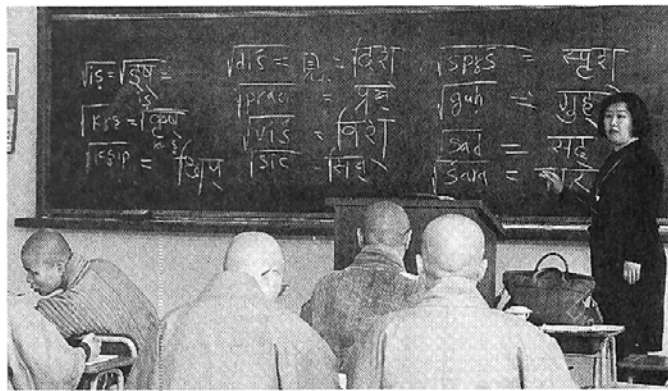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연구·교육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불교원전번역연구소(소장 최봉수),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의 축적된 연구가 취약한 국내 여건으로 이들 연구·교육기관은 <범어 30일 학습(범어개론) 등 기초적인 언어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평이다. 그중에서 <구사론> <회정론> 등 범어번역서를 강의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원전번역연구소가 그나마 논서강독과 경전번역 등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원부족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같이있는 연구·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영국에서는 이미 백년전인 1881년 T.윌리엄이 팔리어 경전과 주석서를 번역 출판하기 위해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PTS)를 설립하고, 1882년 첫 학회 논집을 발간한 이래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PTS는 원전을 수집해 편집하고 번역

영국에선 이미 1백년전 팔리성전협회 설립 원전번역연구 활발

하는 한편 논장·불교문화·역사·예술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어 불교학 연구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다.

현재 불교학계는 영국의 PTS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이 국내에도 설립돼야만 미래 학분야인 원전연구·교육분야를 보다 활성화



◇ 국내 원전연구·교육은 기초적인 언어교육과 감동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 사진은 중앙승가대 '범어강독' 교육 현장.

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뒤늦게야 종단이 원전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뛰어들어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해의유학생과제제'와 영어·일어·중국어 등의 교육을 담당할 '외국어전문학림'을 통해 원전연구와 외국의 선적연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 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나와 경전



유행경



혜 남
<불전국역연구원장>

나는 본래 여행을 좋아하여 수좌생활을 할 때에는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수행시절에 어떠한 곳에서 수도하셨으며 성도하신 뒤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어떤 곳을 다니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법문을 하셨을까 하고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우연히 <붓다 최후의 여행>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팔리어성전(Mahaparinnibbana-suttara)을 번역한 것이었다. 한역경전으로 말하면 <장야함경> 가운데 나오는 <유행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행경>에는 내가 궁금해 하던 부처님의 교화와 방편법문이 옛날이야기처럼 구수하고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어 마치 소설을 읽듯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기사굴 산중에 계시 때 마갈타국의 임금이 발지국을 정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의견을 물었다. 부처님은 발지국 사

아닌 법문으로 설하고 있다.

선정에서 깨어난 부처님은 아난을 불러 수행을 잘 이겨낸 사람은 일곱이나 그 이상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난은 예사로 흘러들어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3개월후에 열반할 것을 말씀하신후 아난과 대중에게 37도품과 계정해, 해탈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법어를 주신다.

옛날의 조사스님들은 밝은 내대에도 '아이고 어두워라' 하시며 등불을 들고다니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세계가 밝은 진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싶던 어둠속으로만 치우쳐가는데 대한 우려이다.

부처님 또한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한말씀으로 수행자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대강장이 춘다의 독버섯 공양을 받고 열반 순간에 임박해서도 부처님은 춘다를 위로하며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였을

부처님 최후 여행모습 소설처럼 서술 "모든것 변한다...수행 게으르지 말라"

람들이 자주 모여서 정사를 협의하고, 입금과 신화가 서로 존경하며, 법을 받들고 예절을 지키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스승을 받들며 선조를 잘 모시고, 가정부인이 정숙하며, 사문을 섬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을 공경하는 등 일곱가지의 법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번창할 것이니 합부로 정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요즘처럼 한 번 사신, 각종 부정범죄사건 등으로 얼룩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새겨 읽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들이 발지국 사람들처럼 서로 존경하고 항상 의논하고, 법을 받들어 생활한다면 오늘과 같은 나라 정체가 흔들리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은 마갈타국의 임금이 돌아간 뒤에 수행자에게도 일곱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며 여러곳을 계속 유행하신다. 그러던 중 중병을 얻게 된 부처님은 열반에 들고 싶은 심정이 되지만 아직 열반의 때가 아님을 아시고 생각을 기다려서 선정에 들지 병은 곧 풀려간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실지로 보여신 부분이다. 우리들의 병과 괴로움도 결국은 마음, 즉 우리 자신에게서 연유하고 또 해결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법문

때 울린 최초공양과 열반 직전에 올리는 최후 공양의 공덕이 가장 수승함을 설하신다. 참다운 공양은 사람이 능히 불법을 수지하여 실행하고 항상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마지막 제자인 스리다를 받아들이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긴채 열반에 드시는데 이 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다리로 생긴 사리를 분배해 답을 세우는 일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를 통해 <유행경>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유행경>은 대승 <열반경>이 부처님을 지나치게 신격화 한 것에 반하여 '피로하다' '눅고있다' '물어 마시고 싶다'는 등 노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마치 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 인간미가 곳곳에서 느껴지는 초기경전이다.

중앙승가대학에서도 지난해부터 한역본 <유행경>을 경전강독시간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불자여러분들에게는 한글대강경 <장야함경>에 수록돼 있는 <유행경>을 권하고 싶다. 한술 한술 읽어내려가며 그 옛날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새겨본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南無佛칭명 정토왕생 발원"

태원스님 박사논문 '염불의 원류와...'

수행법 가운데 가장 널리 보편화된 염불의 기원을 탐구하고 사상적 변천을 고찰한 논문이 처음 나왔다.

태원스님은 경도불교대학(日) 박사학위를 받은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에서 초기 정토경전인 <대아미타경>과 <광등각경> 등에서 믿음에 의한 보살도 실천으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표현이 후기 정토경전 <여래회>에서는 믿음(信)과 발심이 근본이 되어 부처님의 이름을 읊조릴 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천된 염불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부처님을 부르는 칭명(稱名)은 입단귀의의식인 '나무랄'(南無佛)에서 비롯됐다. 석존을 향해 '나구'(南無, Namas)라고 부르는 감흥어가 서방을 향해 나무라이타불을 부르는 칭명사상으로 발전했고 <법화경>에서는 '나무석가모니불'로 발전했다.

인도의 용수(龍樹)는 이러한 정토사상을 더욱 대중화 해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깨달을 수 있다는 칭명(稱名)염불을 주창해 누구나 실천하기 쉬운 염불의 대중화를 꾀했다. 중국으로 전한 정토사상은 AD 520년경 달마조사의 의해 중국에 들어온 선사상과 융합해 염불과 선을 함께 수행하는 '선정겸수'로 발전했고 한국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태원스님은 "중국 초기에는 염불이 현세 부처님 친견을 목적으로 하다가 달마와 도작선사에 의해 내세 극락왕생을 목적으로 한 정토사상의 순수한 정토염불로 변화됐다"면서 "법조, 승원, 자민선사에 이르러 불교적인 사상으로 발전한 염불은 모든 수행법을 융합해 깨달음에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태원스님

제의 참사람 연구(김태완) 등 15편의 논문이 실렸다.

대승기신론 강좌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과 <한국불교공부론(고려편)> 강좌를 개설한다. 지관스님이 강의할 이번 강좌는 <대승기신론>이 격주 목요일에 개설되고, <공부론>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02)765-9602

학술단신

한국종교논집 등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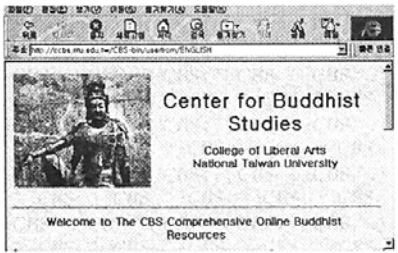
원광대 산하 한국종교연구소(소장 류병덕)와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소가 각각 <한국종교논집21호>와 <백련불교논집>을 발간했다.

<한국종교논집21호>에는 류병덕, 김홍철, 양은용교수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호남지역의 진묵(震默)신앙 유포현황과 그 민중

적 성격'을 비롯해 '대승기신론'(김강룡) '한을 통해 본 지눌의 사상'(김창구) '현대 중국의 종교법제' 등 논문 12편이 수록됐다.

제5, 6권 합본인 <백련불교논집>에는 '조당집 來·法의 연구'(박영록) '당대후기 유훈과 종말의 원인론 비교'(리기용) '불교소설의 구성원리와 타계의 상관성 연구'(김진영) '성리학 형성에 있어 불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정성희) '경허의 선사상'(한동광) '일

대만 불교연구 자료 열람 : 고대어 학습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대만국립대 불학원

대만국립대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 '불학연구소'는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관련 연구와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멀티미디어 불교자료를 공개해 놓고 유렵, 일본 등지에 개설된 불학연구소와 통신망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꾀하고 있는 사이트.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비롯해 해외 불학연구소와 교류된 자료를 일반 불자네트즌에게 공개해 주고 있어, 심도있는 불교학의 자료 및 연구서를 구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정보는 △학술자료 △경전 △일반자료 등으로 '학술자료'에서는 참고문헌정보를 비롯해 학술잡지와 불교도서목록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경전에는 불광대장경 외에도 산스크리트·팔리·티벳경전에 관한 정보도 구할 수 있다. 특히 '일반자료'에서 제공한 '고대어학습'이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과제학습을 제공해준다.

'불학연구소' 주소: http://ccbs.ntu.edu.tw/CBS-bin/

오쇼 라즈니쉬의 진리로운 책들...

살아 있는 선(禪)

-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신간

42장경

붓다의 42장경을 함축하여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통찰,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세:1권 삶의 해면에서 모은 조각들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40쪽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성과 철학과 심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옥·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버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TEL : 778-6826-7 FAX : 778-6828 **성야출판**